

## 高麗中期 文人의 陶淵明 受容에 대한 考察

金 聖 基

- I. 序
- II. 陶淵明의 文學的 生涯
- III. 陶淵明文學의 受容要因
  - 1. 詩文의 内容
  - 2. 詩文의 문학적 표현
- IV. 陶淵明文學의 受容過程

- 1. 「文選」의 영향
- 2. 蘇東坡의 영향
- V. 陶淵明文學의 受容樣相
  - 1. 斷片的 受容의 경우
  - 2. 包括的 受容의 경우
- VI. 結 論

### I. 序

우리의 한시문이나 가사, 시조 등 고전문학 작품 전반에 걸쳐서 陶淵明(372—427)의 문학과 생애에 관련된 대목들은 여기저기서 산견된다. 도연명의 전원생활과 전원생활에서 창출된 문학은 오랜 동안 문인들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다. 유교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문인들에게 있어서 조정에 出仕하는 것과 전원에 은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계된 생활의 양면이며, 출사한 모든 문인들도 늘 “전원에 돌아간다(歸田園)”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간다. 문인들은 宦路의 번체함 속에서 전원생활을 통경하면서 도연명의 문학과 생애를 떠올리고, 또한 전원에 은거하면서 도연명의 문학과 생애를 벗삼아 온 것이다.

그러나 도연명의 생애와 문학이 문인들의 시문에 오르내리게 된것은 도연명이 생존하였던 시대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그려하다.

도연명의 시는 그의 생존시에는 잘 알려지지 아니하여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작품 중에는 산일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도연명의 시에 심취하였던 梁昭明太子蕭統(501—531)이 도연명의 작품을 수집 정리하여 『陶淵明集』을 편찬한 것이<sup>1)</sup> 도연명의 死後 100년이 지나지

1) 謝无量『中國大文學史』(臺灣中華書局, 臺北, 1976), p. 251.

아니하였던 때의 일이었으나 수집된 작품의 수는 100여편에 지나지 못하였다. 『陶淵明集』의 편찬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정은 그간 後人의 偽作이 섞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게 한다.

劉維崇은 『陶淵明評傳』에서 도연명의 작품은 후인에게 애호되는 바에 비하여 현재 전하는 작품은 가석하게도 많지 아니하고 후인의 위작이 섞이었다고 하였다.<sup>2)</sup> 그는 清 陶澍의 『陶靖節集』을 근거로 하여 도연명의 작품의 수를 4언시 9수, 5언시 119수, 解·賦 3편, 記·傳·述·贊 14편, 疏와 祭文이 4편, 그리하여 그의 시문이 모두 149편이라고 하고,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五孝傳」과 「聖賢群補錄」은 위작이라 하였다.

그러나 비록 작품의 수는 많지 아니하나 도연명 시의 平談하고 자연스러운 풍격과 이야기를 하듯 평이하게 시를 전개하는 기법은 후인들에게 작시상의 模範으로 받들어졌다. 唐의 李白과 杜甫도 그의 시를 모범으로 본받고자 하였으며,<sup>3)</sup> 草應物, 柳宗元, 白居易와 宋의 王安石, 蘇軾, 蘇轍 등에 의하여도 본받는 바가 되었으며,<sup>4)</sup> 南宋의 朱熹도 그의 시와 인간을 아울려 매우 좋아하였음이 확인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중엽에 李仁老가 도연명의 작품에 和作하기 시작한<sup>5)</sup> 이래 문인들 사이에 널리 도연명의 작품이 애송되면서 많은 和作詩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도연명의 전원생활과 그의 작품 세계는 그들에게 창작의 모티프(motif)가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도연명의 시에는 전원과 山水에 대한 酷愛, 은거생활에 대한 가치의 부여, 嗜酒와 嗜琴의 소박한 풍류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이러한 가운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安貧樂道하는 전원생활의 정서를 평담하게 보여 주는데 이와 같은 도연명시의 성격이 후세의 지식인들의 취향에 절 어울렸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문인들은 出仕의 길에서도 언제나 유교의 전통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用行舍藏의 순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전원에 은거하는 도연명의 생활은 곧 그들의 생활일 수가 있고, 전원

2) 劉維崇, 『陶淵明評傳』(黎明文化事業公司, 臺北, 1978), p.233.

3) 車柱環, 「詩歌를 통해 본 韓·中國文學思想」, 『韓國思想大系 I』(大東文化研究院, 1973), p.592.

4) 謝无量, 『 위의 책, p.251.

5) 李仁老 이전에도 도연명의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전하는 문헌에 의하면 李仁老가 도연명에 和作한 최초의 시인이 된다.

에서의 ‘안빈낙도’가 곧 그들이 지향하는 德目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에서 魏晉이래 크게 流行하기 시작하여 이미 三國時代末에는 우리나라에도 傳來된<sup>6)</sup> 것으로 보이는 老莊思想의 無爲自然은 相乘的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서는 전통사회에 속한 대부분의 文人们에게 도연명 문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歸田園’과 ‘自然親和’는 언제나 가능하고 익숙한 것이며, 도연명이 즐긴 술과 거문고와 국화의 소박한 풍류는 곧 그들의 풍류이며 도연명이 실천한 ‘안빈낙도’는 바로 그들의 덕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연명의 문학을 胚胎한 그의 생애와 도연명 문학의 특징을 살펴 그것이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어떤 素因을 지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연명 문학이 수용되는 초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중기의 李仁老, 金克己, 李奎報, 陳津 등 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수용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陶淵明의 文學的 生涯

도연명은 潟陽의 柴桑(현 江西省 九江)에서 태어났다. 그는 字를 元亮이라 하였고, 晉이 망한 뒤에는 潛이라고 이름을 고쳤다.<sup>7)</sup> 이러한 그의 改名에서 도 隱逸의 뜻을 엿볼 수 있다.

도연명의 傳記에 관한 기록으로는 『宋書』 「隱逸傳」, 『晉書』 「隱逸傳」, 『南史』 「隱逸傳」과 頗延之(384—456)가 지은 「陶徵士誄」, 蕭統의 「陶淵明集序」 그리고 도연명 自作의 「五柳先生傳」이 있는데, 이들 기록은 모두 추상적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의 生沒시기에 관하여도 주장이 나뉘고 있다.

도연명 死後 60년만에 沈約이 썼다는 『宋書』 「隱逸傳」에 의하여, 도연명은 晉 哀帝 興寧 3년(365년)에 출생하고, 宋 文帝 元嘉 4년(427년)에 卒하였다.

6) 李鍾殷, 『韓國詩歌上의 道教思想研究』(普成文化社, 1978), p. 54.

7) 劉維崇, 같은 책 p. 1.

다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卒年이 元嘉 4년 임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출생 시기에 대하여는 宋 張縝在의 晉 穆帝 永和 8년(352년)이라는 說, 清 陶澍의 晉 孝武帝 太元 元年(376년)이라는 說, 그리고 梁啓超의 晉 簡文帝 咸安 2년(372년)이라는 주장 등이 갈라서 있었다. 최근에는 李辰冬, 黃仲崑 등에 의해 도연명의 詩句 중 年紀를 나타내는 부분을 토대로 하여 양제초의 咸安 2년(372년)說이 定說化되었다.<sup>8)</sup>

도연명의 家系는, 그의 증조부 陶侃이 晉의 大司馬로 문무를 겸전한 명장이었고, 그의 외조부 孟嘉가 또한 당대의 풍류인이었음은 확인이 되나 기타는 분명치 아니하다. 다만 그의 조부 陶岱가 武昌太守를, 그의 아버지가 安城太守를 지낸 것으로 추정할 뿐 그의 아버지는 이름조차 전하지 아니한다.<sup>9)</sup>

그런데 도연명이 출생하였을 때 이미 그의 집안이 물락한 상태이었다고<sup>10)</sup> 하나 판묘적 가정의 가르침을 받아 도연명은 문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비록 도연명의 문벌은 대단치는 아니한 듯하나 어려서부터 儒家의 교육에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일생의 ‘窮窮節’과 ‘隱逸의 풍류’는 무인으로서 명장의 칭호를 얻었던 증조부와 당대의 풍류인이던 외조부를 둔 家系에서 짐작이 되는 바가 있다 하겠다. 또한 도연명이 배어난 潤陽의 柴桑은 東으로 鄱陽湖, 北으로는 囬廬山, 西로는 潤陽江과 澄浦港을 접하여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도연명의 생애는 出仕與否를 기준으로 하여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 첫째의 시기는, 그가 22세 되던 東晉 孝武帝 太元 18년(393년)에 江州의 祭酒로서 최초의 出仕를 하기 이전까지로 잡아 볼 수 있는데 주로 勉學과 躬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둘째의 시기는 최초의 출사로부터 그가 34세 되던 義熙一年(405년)에 彭澤令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10년간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 이 때에 다섯 번의 出仕와 隱退를 반복하게 된다. 그 세째의 시기는 彭澤令 은퇴 이후 20여 년간에 해당되는 철저한 전원생활의 시기라고 할

8) 유우승, 『위의 책』, p.12.

9) 劉維崇, 『위의 책』, p.1.

10) 張基瑾, 『陶淵明』(中國古典漢詩人選 三, 大宗出版社, 서울, 1975), p.25.

11) 劉維崇, 『위의 책』, p.1.

“淵明有這樣一個世代爲官的家庭，所以幼承庭訓，博覽群書，在文學方面，打下了良好基礎”

수 있다.

도연명은 어려서부터 뜻을 책과 거문고에만 두고勉勵하여 六經을 익혀<sup>12)</sup>儒家的 소양을 쌓았다. 그리하여 한때는 전형적인 儒者로서의 출세의 대망과 포부를 지녔음을 그의 「雜詩」其五, 「擬古」其八 등의 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擬古」其八의 일부이다.

“젊어서는 세차고 억세었노라  
칼을 차고 멀리 갔었노라.  
멀지 않다고 누가 말하랴  
張掖(甘肅省)에서 幽州(河北省)까지 갔었노라  
배고프면 수양산 고사리 따고  
목마르면 易水의 물을 마셨노라.

(少時壯且厲, 撫劍獨行遊, 誰言行遊近, 張掖至幽州, 飢食首陽山, 渴飲易水流)<sup>13)</sup>

이 시에서는 隱逸파는 대조되는 大望과 包負의 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에도 속세를 싫어하는 隱逸의 취향이 한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歸園田居」其一에서 그는,

“일찍부터 속세의 기풍이 맞지 않고, 본성이 산을 좋아하였노라.”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sup>14)</sup>

고 하였는데, 그밖에 「飲酒」其十六,<sup>15)</sup> 「始作鎮軍參軍經曲阿」<sup>16)</sup> 등과 함께 젊은 시절에 이미 속세에 마음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연명은 12세에 부친을 잃고 더욱 생활이 곤궁하였는데, 이 무렵 東晉의 王室은 弱化되고 매년 兵火가 계속되어 民生이 塗炭에 빠져 있고 軍閥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國事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었다. 이리한 때에 도연명은 가난을 면해보고자 22세(393년)에 최초의 출사를 하여 州의 祭酒가 되다. 沈約의 『宋書』『隱逸傳』에서는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가 빚고 집이 가난하여 州의 祭酒가 되었는데, 벼슬아치의 일이 맞지

12) 李辰冬, 『陶淵明評論』(東大圖書公司, 臺北, 1975), p.193.

13) 丁仲祐: 『陶淵明詩錢注』卷四。

14) 丁仲祐: 『위의책』卷二。

15) 丁仲祐: 『위의책』卷三。

16) 丁仲祐: 『위의책』卷二。

아니하여 얼마 있다가 스스로 그만두고 돌아왔다. 州에서 主簿로써 불렸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 생활을 꾸렸다.”

(親老家貧 起爲州祭酒 不堪吏職 少日自解歸 州召主簿不就 躬耕自資)<sup>17)</sup>

집안 어른이 늙고<sup>18)</sup> 집이 가난하여 마지못해 벼슬에 나아갔으나 그 일을 전디지 못하고 벼슬 뒤에 물러나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은 28세(399년)에, 당시 軍閥로서 최대의 실력자로 수도 建康 부근의 京口에서 군림하면 鎮軍將軍 劉牢之의 參軍이 되어 두번째의 벼슬길에 나선다. 그러나 그 해에 농민의 봉기가 일어나 浙江省 일대를 휩쓸자 다시 물러나고 만다. 그의 시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을 보면 참군이 되어 부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키지 아니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름을 바라보며 높이 나는 새가 부끄럽고  
물가에 서면 혜엄치는 물고기가 부끄럼노라  
본래 나는 참 뜻을 깊이 간직 하였거니  
누가 외형의 자취에 베인다고 하리  
애 오라지 세상의 조화를 타고 벼슬하지만  
종내는 班彪<sup>19)</sup>처럼 오두막에 돌아가 살리라.  
望雲慚高鳥 臨水愧游魚  
眞想初在襟 誰謂形迹拘  
聊且懶化遷 終反班生廉<sup>20)</sup>

난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江陵을 중심으로 웅기하던 大軍閥 桓玄은 402년에 建康에 入城하여 실권을 장악한다. 도연명은 30세에 桓玄의 幕下로 세 번째의 출사를 한다. 桓玄은 비교적 文士를 대접해주는 사람이었고, 도연명의 外祖父인 孟嘉가 그의 아래서 長史를 지낸 인연도 있었다. 그러나 도연명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의 銮을 당한 것을 핑계로하여 은퇴하고 말았다.

도연명은 33세이던 해(404년) 늦가을에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建威將軍 劉敬宣의 참군이 된다. 그리고 이듬해(405년)인 乙巳 三

17) 유유승 : 위의 책 p.17.

18) 이제 양천중 어머니만 생존하였음.

19) 後漢 배의 사람. 『漢書』를 편찬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아들 班固가 완성하였다.

20) 丁仲祐 : 위의 책, 卷三.

月에 劉敬宣의 사표를 전하는 심부름을 하고는 그도 역시 사표를 내고 은퇴해 버렸다. 이 때의 심정은 그의 시 「乙巳歲三月爲建威參軍使都經錢溪」의 한 구절, “나는 어찌된 자이기에／이 벼슬에 매여 애를 쓰고 있는가?”(伊余何爲者 勉勵從茲役)<sup>21)</sup>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가난이라는 현실을 두고 출사와 은퇴의 갈등을 계속하면서 그는 늘 은퇴의 쪽을 선택하였다.

이 해(405년) 8월에 도연명은 다시 출사를 하여 집에서 百里 떨어진 小邑 彭澤의 승이 되었으나 80일 만에 印綬를 풀어 던지고 아주 은퇴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사정과 경과는 그의 「歸去來辭」并序'에 상세하다. 즉 그는 가난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급자족에 부족하면 차에 彭澤令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마침 그 公田의 이득으로 술을 빚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것을 구하여 출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어찌 五斗米 때문에 춘뜨기 아이놈에게 허리를 굽히랴.”(我豈能爲五斗米 折要向鄉里小兒)<sup>22)</sup>고 하면서 물러났던 것이다. 도연명은 「歸去來辭」并序'에서 이 때의 심회를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이내 끄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이유는 바로 내 본래의 성품이 자연의 무위를 따라서 역지로 고쳐질 수가 없었다. 아무리 끊주립파 추위가 싫하다 하여도 본성을 어겨서 벼슬을 살자니 병이 돋는 듯하였다.”

(及少日眷然有歸與之情 何則質性自然 非矯厲所得 飢凍雖切 違已交病)<sup>23)</sup>

도연명은 그후 몇 차례 출사의 유혹을 뿌리치고 躬耕으로 가난을 겪더니면서 은밀의 시인, 哲人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여생을 지내고 56세(427년)에 “인생은 실로 어렵도다. 이제 죽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아, 슬프도다.”

(人生實難 死如之何 嘴呼哀哉)<sup>24)</sup>라는 「自祭文」을 남기고 생을 끝마쳤다.

도연명은 유가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서 현실에 대한 대망과 포부를 간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연을 따르는 그의 천성으로 하여 출사와 은퇴를 반복하는 갈등의 시기를 거쳐 완전히 전원에 은거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주로 그가 남긴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再構되는 바의 것이기

21) 丁仲祐: 위의 책, 卷三。

22) 沈約: 宋書』『隱逸傳』。

23) 李辰冬: 위의 책, p.175.

24) 李辰冬: 위의 책, p.203.

도 하지만 그의 생애의 과정은 바로 그의 문학의 내용이며 세계라고 할 수 있다.

### III. 陶淵明文學의 受容要因

후세의 문인들에게 도연명문학이 수용되는 요인은 평의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의 문학의 내용은 곧 그의生涯 그 자체이므로 그의 생애의 부분부분이 후세文人們에게 작품창작의 모티프(motif)가 되거나 작품 중에用事로 나타나게 된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후세의文人们이 도연명의 작품을詩作上의典範으로 본받게 되는데 그러한典範이 될 수 있는 그의詩文이 지니는 문학적 특색이 수용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 1. 詩文의 內容

먼저 도연명詩文의 내용이詩作上의 모티프가 되거나 표현의 技法으로서用事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 ① 貧苦

蕭統이「陶淵明傳」에서, “親老家貧, 起爲州祭酒”라 하여 그의 마지못한出仕의 이유를 가난때문이라고 밝힌 바도 있지만, 도연명은幼年에도貧苦를 겪었고老後에도富裕하지는 못하였다. 일반적으로東洋의 전통적 사회에서‘貧’은文人的 공통된病이라 할 수 있지만 도연명의 경우처럼衣食조차있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일은 그리 혼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시「擬苦」9首 중 한 수에,

“동방에 한 선비가 있으니  
입는 옷은 늘 해친 것이고,  
한 달에 아홉 끼를 겨우 먹으며  
십년 내 낡은 것 하나를 쓰네.”  
(東方有一士 被服常不完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sup>25)</sup>

25) 丁仲翰: 위의 책, 卷四.

이라 하였고, 또한 「詠貧士」 7首 중 한 수에서,

“해진 옷자락 팔꿈치를 가리지 못하고

나물죽도 늘 제대로 끓이지 못하네.”<sup>26)</sup>

(弊襟不掩肘 藥羹常乏斟)<sup>27)</sup>

라 한 것에서 보듯이 그의 시에 나타난 가난은 해어진 의복에 팔꿈치가 다  
드러나고, 나물죽조차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는 딱한 지경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난의 어려움을 도연명은 태연하게 견디어 잔다, 다음  
은 그의 「乞食」의 일부이다.

“굶주림에 물리어 나갔으나  
어디로 간까 망서혔노라.  
미적미적 이 뜻까지 와  
문을 두들겼으나 말 못하여라.  
주인은 내 뜻을 알아 차리고  
베풀어 주니 헛결음이 아니었네,  
어울려 이 야기하다 날이 저물어  
술상 맡고 잠 기울여 취하였노라.”  
(飢來驅我去 不知竟何之  
行行至斯里 叩門拙言辭  
主人解余意 遺贈豈虛來  
談解終日夕 鴟至輒傾杯)<sup>27)</sup>

허기가 쳐서 발닫는 대로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주인은 그 뜻을 해아리고 베풀어 준다는 것이다. 그가  
천진하고 순박하게 가난을 전دي며 태연히 살아가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  
다. 이러한 도연명의 면모에 대해 蘇軾(1039-1112)은 다음과 같이 찬탄한다.

“도연명은 벼슬하고 싶으면 나가서 했고, 그렇다고 그것을 구하여 꺼리는 일이  
없었다. 또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했고 그렇다고 고결하다고 자처하지도 아니하였  
다. 배가 고프면 남의 접문을 두드리고 밥을 찾기도 했으며, 살림이 넉넉하면 밥  
을 잡고 기장밥을 짜어 손님을 칭해 대접하기도 했다. 옛날이나 이제나 그를 높  
이는 것은 바로 그의 진솔함을 귀히 여기는 때문이라 하겠다.”

26) 丁仲祐: 위의 책, 卷四.

27) 丁仲祐, 위의 책, 卷二.

(淵明欲仕則仕 不以求之爲嫌 欲隱則隱 不以去之爲高 飢則扣門而求食 飽則鶴黍以迎客 古今賢之 貴其眞也)<sup>28)</sup>

이러한 安貧과 自在의 생활은 고금의 혼인들이 귀하게 여겨 따르고자 하는 바인데 도연명은 이를 일상의 생활로서 꾸밈없이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의 「五柳先生傳」에서 五柳先生이 “가난하고 친한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부하고 귀한것에 굽굽하지 아니하는(不戚戚於貧賤 不汲汲於富貴)”<sup>29)</sup> 태도는 바로 도연명의 생활태도라고 할 수 있다.

### ② 躬耕

도연명은 名利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전원에서 躬耕을 하며 살았다. 그의 시에는 스스로 농사짓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 많다. 다음은 그려 한 첫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벼슬살이는 나의 소망이 아니었고  
본업은 오직 밭갈이와 누에치기였노라.”  
(代耕本非望 所業在田桑)<sup>30)</sup>  
“세벽에 일어나 거친 밭을 손질하고  
달과 더불어 호미 메고 돌아온다.”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sup>31)</sup>

이들 시에서는 직접 농사일을 하는 생활을 그리고 있다. 도연명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는 늙고 집이 가난하여(母老家貧)’ 6,7년간 벼슬살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늘 전원에 돌아와 농사지을 것을 희망하였다. 그는 전원 속에서 스스로 농사지어 自給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반면 정신의 유쾌함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 ③ 自然親和

도연명을 소위 田園詩人이라고 하거니와 그는 전원생활을 통하여 대자연에 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8) 張基植편 :『陶淵明』大宗出版社, 서울, 1975), p.43.

29) 李辰冬 : 위의 책, p.183.

30) 丁仲祐 : 위의 책, 卷四, 「雜詩」

31) 강은 책, 卷二, 「歸園田居」

그의 「歸園田居」에서 는,

“어려서부터 세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성품이 본래 산을 사랑했노라.”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sup>32)</sup>

고 하여, 어려서부터 속세에는 뜻이 없고 천성이 자연을 친애하였음을 나타내준다.

그의 시 「時運」에서는 늦은 봄의 出遊를 묘사하고 있는데,<sup>33)</sup> 그는 이 시에서 처럼 혼자 노닐면서 蕪松翠柏이 가득한 산, 清澈碧綠의 물을 즐기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뻐한다.

그의 「移居」에는,

“봄 가을에는 좋은 날이 많으니

오늘도 높이 올라 시를 읊노라.”

(春秋多佳日 登高賦新詩)<sup>34)</sup>

고 하여 봄 가을로 날이 좋은 때에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읊는다고 하였으니, 도연명의 出遊는 생활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자연과의 친화를 통하여 도연명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도야하고, 자연의 오묘한 이법을 느끼며 즐겼다고 할 수 있다.

#### ④ 摫琴과 讀書

도연명은 어려서부터 거문고를 익혔다고 하였는데, 그의 시에는 거문고에 관련된 것이 많다.

“清琴橫牀 獨酒半壺”<sup>35)</sup>

“衡門之下 有琴有書 戴彈載詠 爰得我娛”<sup>36)</sup>

“息交遊閑卧 生起弄琴書”<sup>37)</sup>

“弱齡寄事外 委懷在琴書”<sup>38)</sup>

32) 丁仲祐: 위의 책, 卷二.

33) 丁仲祐: 위의 책, 卷一.

34) 丁仲祐: 위의 책, 卷二.

35) 丁仲祐: 위의 책, 卷一, 「時運」

36) 丁仲祐: 위의 책, 卷一, 「答龐參軍」

37) 丁仲祐: 위의 책, 卷二, 「和郭主簿」

38) 丁仲祐: 위의 책, 卷三, 「始作鎮軍參軍經曲阿」

“知我故來意 取琴爲我彈”<sup>39)</sup>  
“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sup>40)</sup>

위의 시에서 거문고(경우에 따라서는 책과 더불어)는 情操를 놓고 근심을 잊게 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은 거문고를 어루만지면서 그것에 자신의 뜻을 부쳤던 것이다.

그런데 『宋書』「隱逸傳」에는,

“潛은 음악의 소리를 해득하지는 못하였으나 꾸미지 않은 거문고를 하나 가지 고 있었는데 출이 없는 것이었다. 출이 있을 때마다 문득 어루만지며 그 뜻을 부쳤다.”<sup>41)</sup>

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연명이 어려서부터 琴·書를 배우고 젊었을 때에도 琴·書에만 뜻을 두었다고 한 그의 시 「始作鎮軍參軍經曲阿」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연명으로서는 이미 생활 속에서 거문고를 벗삼는 멋을 짚어 알고 있기 때문에 거문고줄을 통하여 나는 소리 자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예거한 ‘거문고’에 관련된 詩句에서는 琴과 書가 거의 짜을 이루며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시 「飲酒」에 “어려서 부터 속인들과 어울리지 않고／오직 六經에 묻혀 마음을 즐겼노라. (少年罕人事 游好在六經)”<sup>42)</sup> 한 것에서 보듯이 도연명은 어려서부터 독서를 생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연명의 생활은 颜延之의 「陶徵士誄」에 여실히 드러난다.

“세벽 안개, 저녁 놀 그리고 봄 햇살, 가을 그늘에 글을 펼치고 책을 둉으며,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탔다.”

(晨煙暮靄 春煦秋陰 陳書綴卷 置酒弦琴)<sup>43)</sup>

이 인용문을 통하여 도연명이 독서를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도연명의 독서하는 방법은 그의 「五柳先生傳」에

39) 丁仲祐: 『위의 책』, 卷四, 「擬古」

40) 李辰冬: 『위의 책』, p. 175, 「歸去來辭」

41) 유유송: 『위의 책』, p. 160. “潛不解音聲 而蓄素琴一張無絃 每有酒 適輒撫弄以其意”

42) 丁仲祐: 『위의 책』, 卷三.

43) 蕭統『文選』, 卷 57.

“글읽기를 좋아하였으나 깊은 해석을 구하지는 아니하였다.”

(好讀書 不求甚解)

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세세하게 訓詁의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大意를 파악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嗜酒

도연명의 친구였던 頗延之의 「陶徵士誄」에는 도연명이 “異書를 좋아하고 酒德을 즐겼으며”(心好異書 性樂酒德)<sup>44)</sup> 술이 취하여도 “너 어지럽지 아니하였다”(逾多不亂)<sup>45)</sup>고 한 것으로 보아 도연명이 술을 즐겨 마셨음을 물론 술이 취하여도 평소의 언동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평생을 두고 嗜酒한 것은 그의 「飲酒」시 20수에 잘 드러나는 바이지만, 그밖에도 그의 대부분의 시문이 嗜酒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의 自傳이라 할 수 있는 「五柳先生傳」은 그의 嗜酒와 酒德을 여실히 나타내 준다.

“성품이 술을 즐겨하되 집이 가난하여 항상 얻을 수가 없으니 친척이나 벗이 이같은 것을 알고서 때로 술을 마련해 두고서 그를 부르면 가서는 마시기를 문득 다하여 반드시 취하고 만다. 이미 취해서 물리감에는 일찌기 가고 머무름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였다.”<sup>46)</sup>

도연명은 술을 혼자 마시며 즐기는 경우도 많았다. 「歸去來辭」에

“어린 것들 이끌고 방에 들어가니  
술이 항아리에 가득할새  
술병과 잔 끌어다 혼자서 잔질하고  
뜰의 나무가지를 돌아보며 기쁜 얼굴일세.”<sup>47)</sup>

라 한 것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宋書』『隱逸傳』에

“술 익은 것을 보면 머리에 쓴 葛巾을 벗어서 술을 거르고 마친 뒤에 도루 그 것을 머리에 썼다.”

44) 소통: 위의 책, 권 57.

45) 소통: 위의 책, 권 57.

46) 李辰冬: 위의 책, p.183, “性嗜酒 家貧不能常得 親舊知其如此 或置酒而招之 造飲輒盡 期在必醉 既醉而退 會不客情去留。”

47) 이진동: 위의 책 p.175, “携幼入室 有酒盈樽 引壺觴以自酌 啓庭柯以怡顏”

고 한 일화는 후세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바가 되었다.

도연명의 이와 같은 嗜酒는 한편으로는 인생의 시름을 끄고 잊고자한 방편이기도 하였음은 다음 시구들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술잔 가운데 뜻을 벗대로 노닐게 하니,  
저 천 년 역사의 시름을 잊겠노라.”

(中觴縱遙情 忘彼千載憂)<sup>48)</sup>

“술은 능히 삐 가지 근심을 떨쳐 주고,  
국화는 늙은 나이를 벗어나게 해주네.”

(酒能祛百慮 菊解制頹齡)<sup>49)</sup>

도연정도 晉의 劉伶이 평생 술에 심취하였던 것과 같이 울연히 취하여 모든 시름을 잊고자 하였던 면모를 보여 준다. 후세의 시문에서 도연명은 술과 관련하여 劉伶과 짝하여 함께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다.

## 2. 詩文의 문학적 표현

이 항목에서는 주로 문학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도연명의 시문이 지니는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平易性

도연명은 名利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대자연 속에서 自得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활처럼 시문의 표현도 일상의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平淡한 情調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도연명의 시문은 무엇보다도 平易한 것이 특색이다. 도연명의 시문의 성격에 대한 朱熹의 다음과 같은 칭찬은 적절한 바가 있다고 하겠다.

“도연명 시의平淡함은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 평답함을 배웠으나 문득 서로 떨어짐이 있다.”

(淵明詩平淡 出於自然 後人學他平淡 便相去遠矣)<sup>50)</sup>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平淡’의 의미는 文字를 雕琢하지 아니하고 聲韻을 推敲하지 아니하고 窮僻된 典故를 쓰지 아니하며 난해한 語句를 쓰지 아니

48) 丁仲祐:《위의 책》, 권 2.

49) 丁仲祐:《위의 책》, 권 2.

50) 朱熹:『朱子語類』(유유승:『陶淵明評傳』, p. 243 轉載)

한다는 것이다. 즉 도연명의 시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찾지 아니하고 기이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완전히 ‘自然’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연명은 「歸去來辭」에서,

“애 오라지 자연의 조회를 타고서 다함으로 돌아가리니 저 천명을 즐겨 다시 무 엇을 의심하랴?”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sup>51)</sup>

고 하여, 자연과 친화하고 자연의 이법을 따르고자 하는 心性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심성과 태도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詩序」에서 시사되는 바가 있다.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哀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sup>52)</sup>

즉 시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연명의 시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流露가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연명의 자연친화는 곧 그의 평이한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도연명은 『詩經』의 시정신을 가장 충실히 계승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寫實性

詩文이 독자에게 공명을 주고 독자를 폐부로부터 감동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시문이 담아서 전달해주는 ‘참된 事實’이라는 면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의 寫實性이라고 한 용어는 시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사실의 形象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연명은 그의 작품을 통해 심중의 이야기를 평이하게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사실〔事〕이기도 하고 정경〔景〕이기도 하고 이법〔理〕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같이 그의 폐부로부터 나오는 真情의 流露이며 참된 事實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성은 다음의 시구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바이다.

51) 李辰冬: 위의 책, p. 175.

52) 『詩經集傳』, 二以社, 서울, 1982 p. 43.

- “日暮天無雲 春風扇微和”(「擬古」)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飲酒」)  
 “春秋多佳日 登高賦新詩”(「移居」)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歸園田居」)  
 “道狹草木長 夕露沾我衣”(「歸園田居」)

도연명의 작품중 특히 「귀거래사」는 그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는 경과를 수식을 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데 情況이 짜진하여 후세의 문인들이 칭찬하는 바가 된 것으로 보인다. 宋의 歐陽修는 “晉無文章 惟陶淵明歸去來兮辭一篇而已”<sup>53)</sup>라 하여 「귀거래사」를 晉代에서 품을 만한 유일한 작품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도연명 시의 강점은 참된 事實에 말미암는 사실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의 시는 사실성의 단순한 확보에서 나아가 그 속에 내재하는 함축된 뜻이 깊고 묘하다는 데에 그 진면목이 있다고 하겠다. 그 한 예를 들면 그의 시 「飲酒」에서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이라 하였는데, 작중화자가 국화를 따들고 우연히 남산을 바라본다고 묘사된 정황의 뒤에, 도연명의 정신 세계 또는 생활철학에 바탕을 두는 내재되고 함축된 뜻이 이 시의 맛을 내기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연명의 시는 唐代의 시인들에게도 높이는 바여서 唐의 董應物 柳宗元 白居易 등의 대시인들이 모두 그를 높이어 사모하며 본받고자 하였던 것이다.<sup>54)</sup>

중국에서 도연명의 시문은 宋末 소동파이전까지는 詩의 正宗으로서 시대에 관계없이 높이어졌는데, 이러한 점은 도연명의 시문이 『시경』國風으로부터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유유승은 그의 『도연명평전』에서, 중국의 시는 國風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는데 뒤에 演變하여 楚辭가 되고 漢代의 五言古詩 그리고 漢末에 曹氏父子와 建安七子에 계승되다가 魏晉南北朝에 이르러서는 문인들이 淸談을 증상하고 素心의 豔麗와 聲色을 다듬기에 힘써서 淫艷輕佻에 흐를 때에 다만 도연명만이 渚樸한 自然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국풍」의 정신을 계승하여

53) 李公煥箋註：『陶淵明集』

54) 謝无量：위의 책, p.251：“淵明詩 自唐董應物 柳宗元白居易……等 哲尚慕而擬之”

詩學의 正宗이 되었다고 하였다.<sup>55)</sup>

도연명 시의 이러한 면은 그의 시가 시대를 초월하여 꾸준히 문인들이 애호하는 바의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清의 胡風丹이,

“靖節(도연명)은 晉의 제일류의 인물이며 그의 시 또한 그 인물됨과 같아서 潤遠冲和하여 훌로 친고에 두드러진다. 무릇 시에 靖節이 있는 것은 文에 昌黎(한유)가 있음과 같다.”<sup>56)</sup>

고 한 것도 도연명의 시가 시경에 연원하는 정통성에 인하여 생명력을 지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 IV. 陶淵明文學의 受容過程

### 1. 『文選』의 영향

도연명의 詩文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기는 『文選』을 통해서였으리라고 짐작이 된다. 도연명의 시문은 그의 生存時에는 文人們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梁蕭統이 그의 작품 100여편을 모아 친집하였음을 기술한 바이다.

大選文家인 蕭統은 또한 『文選』을 편찬하면서 그 속에 도연명의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文選』에 수록된 도연명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一首(『文選』卷26에 所收)

辛丑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口作一首(『文選』卷26에 所收)

挽歌一首(『文選』卷28에 所收)

雜詩二首(『文選』卷30에 所收)

詠貧士一首(『文選』卷30에 所收)

讀山海經一首(『文選』卷30에 所收)

擬古詩一首(『文選』卷30에 所收)

歸去來辭(『文選』卷45에 所收)

55) 유유승 : 위의 책, p. 227.

56) 유유승 : 같은 책, p. 228.

그리고 도연명의 작품은 아니지만, 도연명과 친한 친구였던 頗延之가 치운 「陶徵士誅」가 『文選』卷47에 수록되어 있어서 도연명의 문학과 생애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작품들이 수록된 『文選』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文人們에게 중시되면서 널리 읽히고 그러한 가운데 도연명의 작품이 알려졌을 것이다. 다만 『文選』에 所收된 내용이 楚辭로부터 5C후반까지에 이르는 7,8백년간의 諸文學을 수록하고 있으니 도연명에게만 집중적인 관심이 주어졌으리라고 믿어지지는 아니하며, 다만 많은 중국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읽혀졌으리라 추정된다.

『文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록으로는 『舊唐書』列傳 高句麗條에,

“풍속이 서적을 사랑하여, 대문이 허술한, 나무나 하고 말이나 먹이는 배성의 집에 이르기까지 각기 큰길 거리에는 큰 집을 짓고 이를 扁堂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밤낮으로 여기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었다. 그들이 읽는 것은 五經과 史記, 漢書, 范曄의 後漢書, 三國志, 孫盛晋의 春秋, 玉篇, 字統字林 등이 있고 또한 文選이 있어서 특히 이를 중히 여기었다.”<sup>57)</sup>

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에서는 이미 『文選』이 전래되어 널리 읽히었으며 매우 충하게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三國史記』列傳 強首條에

“부친은 말하기를 ‘네(강수)의 좋아하는 바(儒者之道)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스승에게 나아가서 孝經, 曲禮, 爾雅, 文選을 읽었다.”<sup>58)</sup>

고 한 것으로 보아 純三 이전의 신라에서도 이미 『文選』이 전래되어 널리 읽히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三國史記』元聖王條의 讀書三品을 정한 기록을 보면,

“봄에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서 출신하게 하였는데, 춘추 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으로 하였다.”<sup>59)</sup>

57) 『舊唐書』卷199 列傳 第149 東夷 高麗條: “俗愛書籍 至於衙門廄養之家 各於衙衛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畫夜於此讀書射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晋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尤愛重之。”

58) 『三國史記』卷第46 列傳第6 強首條: “父曰從爾所好 遂就師 讀孝經 曲禮 爾雅 文選。”

59) 『三國史記』卷第10 新羅本紀第10 元聖王 四年條: “春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 爲上。”

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紇三 이후에도 『文選』이 문인들 사이에 계속 중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紇三 이전부터 시작하여 고려조까지도 이어지며 나 말여초의 문인들에게 唐詩의 영향이 만연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고려중엽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김태준이 그의 『朝鮮漢文學史』에서 李奎報의 문학에 언급하면서 그 당시 시문의 풍조를 설명한 것이 참고가 된다.

“그(이규보)의 詩文에 對한 氣風이니 본래 當時의 風尚을 보면 從來의 漢文唐詩熟이 아죽도 冷却하기 前에 다시 東坡熟을 맞는 것이다. …(중략)… 이제는 完全히 文選의 時代는 지나가고 東坡의 時代가 왔다고 할 것이다.”<sup>60)</sup>

그리고 중국의 사경도 우리와 비슷하여 문인들은 唐·宋 시대까지도 『문선』을 공부하였으며 宋末에 東坡를 높이면서 비로소 『文選』이 퇴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61)</sup> 그러나 『문선』의 퇴조가 곧 도연명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2. 蘇東坡의 영향

『문선』의 전래를 통하여 도연명이 소개되었으나 도연명이 우리나라 시인들의 집중적 관심을 받게된 것은 오히려 『문선』이 퇴조한 뒤의 일로 추정된다. 그것은 문선의 퇴조가 곧 도연명에 침취하였던 소동파의 문학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소동파만큼 도연명을 높인 사람은 없었다. 유유승의 『蘇軾評傳』에 의하면, 소동파는 도연명을 뽑시 높이었고, 특히 도연명이 체예·교줄에 무심하였음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sup>62)</sup>

소동파는 도연명을 중국 제일의 시인이라고 하였으며 도연명의 全作品에 和作하는 정도의 酷愛를 보여준다. 또한 『소동파집』을 엮은 蘇轍이 序하여

60) 김태준: 『朝鮮漢文學史』, p. 83.

61) 김태준: 같은 책, p. 84 참조.

62) 유유승: 『蘇軾評傳』·黎明文化事業公司, 臺北, 1978, pp. 247—248.

“東坡非常推崇淵明，他說，淵明所以不可及者 薦無心於非鑿巧拙之間也”

“東坡晚年 師法淵明”이라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宋詩의 영향과 함께 이와같이 도연명을 酷愛한 소동파의 시문이 또한 혹애되고 시문의 모범으로 본받아졌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현에서 소동파의 영향이 처음 언급된 것은 李仁老에 의하여 서라고 할 수 있다.

“李學士 眉叟가 말하기를, 문을 달아 걸고 黃庭堅·蘇東坡 두 사람의 문집을 읽은 이후에라야 시어가 遼然하고 詩韻이 鑠然하여 저서 시를 짓는 삼매경에 들 수 있다.”<sup>63)</sup>

그러나 이 인용문의 내용으로 볼 때 李仁老의 시대에 소동파의 영향은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하겠다. 林椿의 「與眉叟論東坡文書」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보건대 근세에 東坡의 글이 한 시대에 크게 유행되어 어느 학자고 이를 服膺하여 읊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sup>64)</sup>

또한 최자가 李仁老의 시를 평하여,

“林椿선생이 眉叟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내가 비록 그대와 함께 『동파집』을 읽지는 아니하였으나 가끔 句法이 서로 비슷하니 이 이제 중심에서 임은 것이 암암리에 서로 부합됨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지금 미수의 시를 보니 일곱 차에 다섯 자는 『동파집』에서 따왔다.”<sup>65)</sup>

고 하였으니, 李奎報가 「答全履之論文書」에서,

“(오늘날 시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동파의 글을 즐기하기 때문에 매년 과거의 방이 나붙은 뒤에는 사람마다 금년에 또 30명의 동파가 나오는구나 한다.”<sup>66)</sup>

고 하였음도 지나친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東坡의 문집이 全州牧에서 간행하게 되어 이규보가 駁을 지었는데 그 글에,

63) 崔濬:『補闕集』卷中: “李學士眉叟曰 杜門讀黃蘇兩集 然後語遼然 韻鑑然 得作詩三昧”

64) 『東文選』卷59, “僕覽近世東坡之文 大行於時學者 誰不服膺吟咏”

65) 『補闕集』卷中, “林先生臻贊李眉叟書云, 僕與吾子雖未讀東坡 往往句法 已略相似矣, 豈非得於中者 闡與之合 今觀眉叟詩或有七字五字從東坡集來”

66) 『東文選』卷59, 「答全履之論文書」 “則尤嗜讀東坡詩 故每歲勝出之後 人人以爲今年三十東坡出矣”

“문집이 세상에 간행되는 것은 또한 한 바에 유행하여 송상하는 바에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속古이래 『동파집』같이 성행하여 특히 사람들이 즐겨하는 바 됨은 없었다.”<sup>67)</sup>

라 하여 『동파집』의 간행이 당시의 東坡熱에 의한 실질적 수요에 따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고려 중엽에 소동파의 대단한 유행과 아울러 그 문집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도연명에 대한 和作詩 등으로 하여 도연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 졌고, 본격적으로 『도연명집』도 수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陶淵明文學의 受容樣相

문학적 受容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앞에서 陶淵明의 문학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詩文의 内容과 문학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詩文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貧苦, 自然親和, 躬耕, 摳琴과 讀書, 嗜酒의 항목으로, 그리고 문학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平易性과 寫實性이라는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受容可能한 이들 항목들이 실제 우리나라 詩人們에게 수용되는 樣相은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어떤 항목들이 詩作에 있어서 用事로 쓰이거나 題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연명의 詩的表現의 특징들이 모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이들 수용의 양상은 포괄적이기 보다는 斷片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斷片的 受容의 경우

이 항목에서는 도연명에 관련되는 것과 시 전체의 흐름과 필연적인 연관은 없이 부분적 표현효과를 위한 用事로 사용된 경우를 주로 살펴 본다.

金克己<sup>68)</sup>의 「龍灣雜興」에,

“豈知陶靖節 林下問征路”<sup>69)</sup>

67) 『東文選』卷102「全州牧新雕東坡文集跋」：“文集之行乎世 亦各一時行尚而已 然今古以來 未若東坡之盛行 尤爲人所嗜也。”

68) 고려 明宗朝에 翰林院에 补職

69) 『東文選』卷四。

라 한 것은 도연명의 「歸去來兮辭」의 “問征夫以前路”의 표현을 환기시키며, 도연명이 彭澤令을 버리고 천원으로 돌아간 것을引用한 것이다.

李奎報(1168—1241)의 「訪盧秀才永祺用白樂天韻同賦」의 “陶潛悟昨非”<sup>70)</sup>는 「歸去來兮辭」의 “覺今是而昨非”的 句에 유사하다.

또한 이 규보의 「呈張侍郎自牧」의

“杜園空費望 陶徑想應燕”<sup>71)</sup>

에서 ‘陶徑’은 ‘도연명의 三徑’이니 역시 「歸去來兮辭」의 “三徑就荒”을 따온 것이라고 하겠다.

金克己의 「思歸」에,

“數畝荒園久欲蕪, 潤明早晚返籃輿”<sup>72)</sup>

라 한 것은 「귀거래사」의 “田園將蕪胡不歸”의 귀결과 도연명이 다리에 명이 있어 남여를 타고 다닌 사실을 함께喚起한 것이라고 하겠다.

蔡寶文은 그의 「珍島碧波亭次崔按部永濡韻」에서,

“柳岸緬思彭澤令 桃村和見武陵人”<sup>73)</sup>

이라 하여, 도연명의 「五柳先生傳」에 五柳로 自號한 것과, 「桃花源詩」에서理想鄉으로 提示한 武陵桃源을 함께 이끌어 쓰고 있다.

李仁老(1152—1220)도 그의 「游智異山」에,

“始問仙源何處是 落花流水使人迷”<sup>74)</sup>

라 하여, 도연명의 「桃花源詩」에 桃源에 들어갔던 漁父가 다시는 桃源의 길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 내용을 환기시키게 한다.

이 규보는 그의 「白雲居士語錄」에서,

“陶潛之五柳先生……皆因其所蓄也”<sup>75)</sup>

70)71) 『李奎報東國李相國集』卷一

72)73) 『東文選』卷十三。

74) 『東文選』卷十三。

75) 『東國李相國集』卷 20.

라고 하여 도연명이 가진 바의 所有物로써 ‘五柳’라 自號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규보의 시에 벼들과 도연명은 자주 연결지어져 나타난다. 이규보의 「奇尚書退食齋用東坡韻賦一絕」에 “宅邊唯種陶潛柳”<sup>76)</sup>라고 하였고, 「重遊龍潭寺」에 “柳恨陶門五減三”<sup>77)</sup>이라 하였으며, 「江南舊遊」에 “柳玩陶潛五”<sup>78)</sup>라 한 것은 모두 도연명의 「五柳先生傳」에서 이끌어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연명은 「飲酒」詩 20首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술을 봄시 좋아하였는데, 그는 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文人们의 詩등에 자주 나타난다.

李仁老는 「讀陶潛傳戲成呈崔太尉」에서, “可笑陶淵明 無錢尚嗜酒”<sup>79)</sup>라 하였고, 또한 「醉鄉」에서는,

“醉鄉淳寂隔齊州 聞說陶劉始得遊”<sup>80)</sup>

라고 하여 竹林七賢 중에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劉伶과 짜을 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李奎報도 그의 「鞠先生傳」에서,

“麴聲字中之, 酒泉郡人也……及長與中山 劉伶潯陽陶潛爲友”<sup>81)</sup>

라고 하여,中山의 劉伶과 潤陽의 도연명이 麴聖의 친구라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술을 잘한다는 것을前提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규보의 시에서는 단순히 ‘술—도연명’式의 연결에서 나아가 도연명의 술과 관련된 故事를 이끌어 쓰고 있다. 즉 이규보의 「六月一日遊安和寺」에

“白蓮邀請節 黃蘖引裴休”<sup>82)</sup>

라고 하였는데, 靖節이 도연명의 謂號임은 물론이며, 白蓮은 東晉의 高僧慧遠法師가 廬山의 東林寺에서 慧永, 慧持, 劉遺民, 雷次宗 등 高士들과 함

76) 『東國李相國集』卷十一。

77) 『東國李相國集』卷十二。

78) 『東國李相國集』卷一。

79) 『東文選』卷四。

80) 『東文選』卷二十。

81) 『東國李相國集』卷 20.

82) 『국역동국이상국집』 I. p.104(주) 참조.

께 結成한 白蓮社를 가리킨다.<sup>83)</sup> 이때 慧遠이 도연명을 부르자, 도연명은 술마시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가겠다고 하여 慧遠이 이에 應하였다라는 故事를 이끌어 쓴 것이다.

그리고 이 규보의 「呈安和寺宗室王禪師」詩에 “惠遠不禁陶令飲”<sup>84)</sup>이라 한 것에서 惠遠은 惠遠法師이며 ‘陶令’은 彭澤令을 지낸 도연명을 가리킨다. 또한 「梁公見和復用前韻」의 “廬岳慵投社,”<sup>85)</sup> 「謝應禪老雨中邀飲」의 “遠公沽酒引陶公,”<sup>86)</sup> 「奉寄張學士自牧」의 “期遊遠公室 共舉陶潛牋”라 한 詩句들은 모두 陶潛과 慧遠法師의 故story를 이끌어 쓴 것이다. 「琴刻背志」에서 “昔陶潛有無絃琴寓意而已”<sup>87)</sup>라 하였고, 「徐學錄見和復次韻答之」詩에 “無絃琴上樂可寓 須信陶潛襟韻古”<sup>88)</sup>라 하여 無絃琴에 樂을 부친 도연명의 운치가 高古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규보는 「詠菊」에서 “莫言陶令獨憐香”<sup>89)</sup>이라 하여 도연명이 국화를 좋아하였음을 이끌어내 있고, 「漫成次古人韻」에 “脚待昇籃陶令病”이라 하여 도연명이 다리의 병이 있어 篓輿를 탔다는 故story를, 그리고 「題黃驪井泉寺誼師野景樓」에는 “陶暑涼軒何必北”이라 하여 도연명이 여름날 북쪽 창 아래에 누워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한 故story를 이끌어 썼다.

## 2. 包括的 受容의 경우

여기서는 도연명문학의 수용요인이 부분적 用事에서 나아가 詩全體의 중요한 題材가 되거나 또는 도연명에 관련되는 用事와 아울러 도연명문학의 표현상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平易性, 寫實性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漢詩에 있어서 平易性과 寫實性은 비단 도연명문학의 특색일 뿐만 아니라 宋詩의 주된 경향이기도 하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 詩經으로부터 源源하는 하나의 指向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예구나 도연명문학의 수용이 宋의 蘇東坡를 매개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

83) 『東國李相國集』卷十一。

84) 『국역동국이상국집』 같은 뜻.

85) 『東國李相國集』卷二。

86) 『東國李相國集』卷五。

87) 『東國李相國集』卷二十三。

88) 『東國李相國集』卷十一。

89) 『東國李相國集』卷十四。

연명의 영향과 소동파의 영향을 구분지어 어느쪽을 도연명의 영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도연명의 영향이 두드러진 몇 가지 경우를 들고자 한다.

李仁老는 도연명의 「歸去來兮辭」의 韻을 그대로 借用하여 「和歸去來辭」를 지었다. 그러나 韵을 그대로 借用하고, 그 내용이 自然에 归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연명 「歸去來兮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확연하지만 『老子』와 『莊子』로부터의 用事が 滥用되어 표현에 있어서 ‘平易, 寫實’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인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바이지만 「讀陶潛傳戲成呈崔太尉」詩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연명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의 絶句들 중에는 平淡한 詩가 있는 것은 도연명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陳渾의 「桃源歌」는 도연명의 「桃花源詩」에 和作한 것은 아니지만 詩想과 詩句가 도연명에 形似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그 一節이다.

“溪流盡處山作口, 土膏水軟多良田, 紅塵吠雲白日晚, 落花滿地春風顛 鄉心斗斷  
種桃後, 世事只說焚書前, 坐看草樹知寒暑, 笑領童孩忘後先, 漁人一見即回棹 煙波  
萬古空蒼然”<sup>90)</sup>

李奎報의 「白雲小說」에 의하면.

“도암의 시는 염답화정해서 칭묘의 거문고 붉은 줄이 무게 있게 울려나는 것 같아서 일창삼탄하게 된다. 나는 그의 시체를 본받으려 하였으나 마침내 그와 방불해지지 못하니 더욱 우스울 뿐이다.”<sup>91)</sup>

라 하였으니, 그가 도연명을 어느정도나 본받으려 했는지 짐작이 되는바다. 이 규보는 도연명의 詩體가 恬淡 and 靜한 것을 본받는다 하였으니 즉 도연명 詩의 平易性, 寫實性을 본받고자 한 것에 다름아니라 하겠다. 그의 「讀陶潛詩」, 「遊家君別業西郊草堂」에서는 平易性과 寫實性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규보의 「陶潛灑酒」<sup>92)</sup>는 도연명이 葛巾으로 술을 거르고 다시 쓰고 다닌

90) 『東文選』, 卷六。

91) 『高麗名賢集』 1. 大東文化研究院 p. 573. “陶潛詩恬淡和靜，如清廟之瑟，朱絃絳越一唱三嘆，余欲效其體，終不得其形貌尤可笑已”

92) 『東國李相國集』 卷十四。

다는 것이 詩전체의 내용인데, 그것이 도연명의 고사일뿐만 아니라 시의 표현도 도연명과 같이 담담하고 平易하다.

## Ⅳ. 結論

陶淵明의生涯는 곧 그의文學의 내용이다. 그의生涯처럼 그의文學은 ‘平淡’하고 ‘自然’스러운 것이 주가 된다.

우리나라에 도연명의 문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文選』의 전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여겨지지만 그 영향이 우리나라 文人們의 작품에 직접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 中葉에 蘇東坡의 문학이 전래되어 유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受容의 樣相은 주로 도연명의 詩句, 邑話가 詩作에 있어서 用事로 쓰이거나 작품의 題材로서 나타나는 斷片的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아울러 도연명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 平易性, 寫實性이 함께 확보되어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李奎報, 陳溤 등이 그러한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의는 漢詩에 있어서 平易性, 寫實性의 추구가 다만 도연명문학의 특색일 뿐만 아니라 고려 중엽에 유행하던 宋詩의 주된 경향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詩經에 源流을 두는 하나의 指向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는前提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도연명의 시에 輝issen 앞서 전래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던 道家思想의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 參考文獻

### 國內

- 徐居正外：東文選，민족문화추진회。
- 高麗名賢集，大東文化研究院。
- 金台俊：朝鮮漢文學史。
- 金學主：中國文學概論，新雅社，1975。

- 車柱環：“詩歌是 通解 본 韓·中文學思想” 韓國思想大系大, 東文化研究院, 1973.

### 外國

- 昭明太子撰 李善注：文選，商務印書館香港和家本。
- 陶淵明詩箋注(丁仲祜編纂)，藝文印書館 臺北，1977。
- 劉維崇：陶淵明評傳，黎明文化事業公司，1978。
- \_\_\_\_\_：蘇軾評傳，黎明文化事業公司，1978。
- 李辰冬：陶淵明評論，東大圖書公司，1975。
- 謝牙量：中國大文學史，臺灣中華書局，1976。